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0. 8.(목)

동해해수청,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개최 및 항만하역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10월 13일(화)에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근로자 안전권 확보 등 필요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참여자(종사자) 단체 등과 함께 구성되었으며, 매년 반기 1회씩 회의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동해소방서, 동해항운노동조합, 동해항만물류협회

점검 전 사전회의에서는 최근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 법령 공유, 각종 사업장 사고사례 등을 전파할 예정이며, 동해항으로 이동하여 항만하역사업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상황과 함께 선박, 위험물, 하역장비 안전에 대한 소관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안전협의체 합동점검을 통해 항만하역사업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등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는 동해·묵호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만물류과	책임자	과 장	이현수 (033-520-6161)
		담당자	항만안전점검관	홍영민 (033-520-6177)

참 고

2026년 상반기 '항만안전협의체' 사진대장

